

'96 주요약용작물 작황을 알아본다

황기농사 지역따라 "웃고 울고"

황기

지난해에 비해 올 황기 재배 면적으로 전국적으로 30~40% 늘어난 것으로 추정.

경기북부, 강원지역의 경우 여름 가뭄과 수해피해를 입어 작황은 예년만 못하다. 반면 충북 제천 단양등지의 황기밭은 예년들어 보기도문 풍작을 기록해 대조적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수확량도 예년의 30~40%를 웃돌 것으로 기대.

1년근 황기재배로 매년 풍작을 거둔 경기도 포천지역의 경우 연작피해가 상당하다. 포천군내 황기재배면적 78만평 중 23만평이 연작피해를 입은데다 작황도 부진. 평당 수확량 역시 예년의 5백g 수준에서 올해는 3백~4백g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황기 전체 재배면적은 예년보다 30~40% 증가했다고는 하나 경기도 연천지역을 비롯한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의 수해와 가뭄피해로 그만큼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돼 결국 올 황기 생산량은 평년작을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구기자

충남 청양에서는 벌써 96년 산 햇 구기자가 출하돼 약 2만근(12톤)정도가 시중 유통되고 있다.

찬바람 나는 9월 중순경 부터 수확할 것에 비하면 색깔 검고 품질 떨어져 제 시세 형성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구기자 올 식재면적은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20~30% 감소.

지금까지의 작황은 그런대로 평년작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10~15일 정도 후에야 보다 정확한 작황을 파악할 수



◇황기재배면적은 예년에 비해 30~40% 늘어난 반면 수해와 가뭄 영향으로 평당수확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있다. 구기자는 비가 며칠 계속해서 내릴 경우 2~3일 사이에도 탄저병 발생으로 수확량이 2만여근(12톤)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확기까지의 일기변동이나 기후조건에 따라 수확량이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전남 진도산 구기자도 지난해 대풍작에 비하면 올해는 식재면적도 3분의1 가량 늘고 작황도 예년만 못하다. 지난해 구기자 시세가 7천원 선까지 하락하는

바람에 대파농가가 많기 때문. 최소한 9천~1만원의 시세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구기자 식재면적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 우려도 낳고 있다.

당귀

지난 여름 가뭄으로 갈아엎은 당귀밭이 재배면적의 30%

에 이르고 있어 수확량도 대폭 감소, 예년에 50% 수준에 머물렀다는 산지인의 분석.

이처럼 당귀 생산량의 급감을 점칠만한 또 다른 근거는 지난해 당귀값의 대폭락을 들 수 있다. 지난해 5천~5천5백원 선이던 당귀값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2천원 선으로 곤두박질 하는 바람에 많은 농가들이 다른 작물로 전환한 경우가 많기 때문.

당귀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강원 평창군

로 예상되나 전체 생산량은 평년작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산지에서 1년근 통으로 5~6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도매

당귀, 재배면적감소

작황부진으로 근당 5천원선까지 오름세 보일전망

가는 7~8천원 선을 형성할 듯.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작약도 재배면적은 대폭 감소

의 경우 작년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 감소했다. 태백 역시 재배농가 대부분이 당귀밭을 갈아엎고 고냉지 채소로 전환, 재배면적이 예년의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

그러나 지난해 재고물량이 아직 1백여근(6백톤) 남아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작약

한번 곤두박질 친 후 종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작약은 재배면적도 예년보다 절반이상 감소한 데다 작황도 형편없다.

이처럼 작약 작황이 부진한 원인은 영남지역이 대체로 날이 가물어 피해를 입은데다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

작약의 주산지인 경북 의성군의 집계 자료에 따르면 의성군내 올 한해 작약 재배면적은 1백57ha, 예상수확량은 5백56톤이다. 그러나 바닥세를 기록하고 있는 작약시세 때문에 수확인건비도 건지기 힘들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중도에 작약밭을 갈아엎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확량은 예상량을 크게 밀도는 3백여톤에 불과할 것으로 산지인은 내다보고 있다.

작약 재고량도 약 1백만근(6백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일천궁

여름 가뭄에 말라 죽어 피해를 본 지역도 일부 있지만 일천궁의 전체적인 작황은 그런대로 평년작을 유지하고 있으

했으나 재고량은 아직도 많아 시세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래되는 도매가격에 근당 3천2백~3천5백원 선으로 포함세를 이룰 전망이다.

일천궁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재배면적은 예년보다 다소 늘었지만 역시 가뭄피해로 평당 수확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재 근당 도매로 3천5백원 선에 거래되나 4천원 선에서 시세형성될 듯.

구기자도 앞으로 뚜렷한 일기변화가 없는 한 지금 시세 근당 7~8천원 선에서 포함세 이룰 전망이다.

기습정보

구기자는 물빠짐이 좋은 질 참흙(식양토)으로 이뤄진 선상지(골짜기 어귀의 부채꼴모양 퇴적지)에서 생육이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농업시험장이 91년부터 3년에 걸쳐 구기자 주생산단지인 충남 청양과 전남 진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상지의 1ha당 생산량은 3천7백80kg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산골짜기나 산기슭에서 구기자를 재배할 경우 3

구기자, 물빠짐 좋은 질 참흙 선상지에서 생육 가장 양호

천6백kg, 구릉지는 2천5백20kg을 수확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상지에 비해 각각 1백80kg, 1천2백60kg 적었다.

선상지에서 구기자를 가장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일조시간이 길어 생육이 양호해 구기자 탄저병과 응애 등의 발생이 적기 때문으로 농업시험장은 분석했다.

한편 토질에 따른 수량은 질 참흙이 1ha당 3천9백60kg으로 가장 많고 모래참흙(사양토)과 질흙(식토)은 각각 2천7백kg, 2천3백40kg으로 나타났다.

며 재배면적도 예년보다 다소 늘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천궁 시세는 근당 3천원 선(절)으로 작년 이맘때 가격인 7천원 선에 턱없이 못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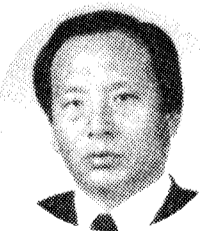
일천궁 주산지는 경북 영양과 울릉도 지역. 영양지역의 경우 1백만근(6만톤)이 올 수확예상량이었으나 가뭄피해로 생산량은 당초 예상보다 30% 감소한 약 70만근(4백20톤)에 이를 것이라는 산지인의 분석.

울릉도 지역은 대체로 평년작을 유지하고 있으며 역시 건근으로 70만근(4백20톤) 수확이 예상된다.

지난해 일천궁 가격이 상승세를 타자 다른 지역에서도 소량 시험재배를 시도했으나 가뭄피해로 작황은 그리 좋지 못한 편. 그러나 천궁 역시 지난해 재고량이 전국적으로 10만~15만근(60~90톤) 가량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도 보고 있다.

시세전망

황인구(50)
생약협회 부회장



올 한해 약초농사가 겨우 평년작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배면적도 예년에 비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작황도 부진한 편이다.

경기침체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약가의 불황도 여전히 거래는 활발하지 못한 형편. 제 시세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시세폭락으로 눈에 띄게 재배면적이 감소한 당귀는

올 작황이 형편없다. 수확량도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할 예정이어서 근당 도매로 2천~3천원 선에 거래되던 당귀가 5천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황기는 지난해 보다 재배면적이 많이 늘긴 했지만 경기, 강원 일원의 경우 수해와 가뭄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 평당 수확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되나 전체 생산량은 평년작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산지에서 1년근 통으로 5~6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도매

가는 7~8천원 선을 형성할 듯.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작약도 재배면적은 대폭 감소